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동부지구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위훈과 혁신의 애국적방향을 뿌려가며 불과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자연재해가 휩쓴 고장에 로동당시대의 빛나는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피해복구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며 이 고장에서 발생한 살림집피해, 농경지피해, 교통운수부문과 국도환경부문피해, 도시경영부문피해, 전력부문피해, 체신부문피해규모와 복구정형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재 김화군에 새로 건설하는 읍지구 소총살림집과 리지역 단층살림집 근 1,000세대에 대하여 총공사량의 88%계선에서 공사를 다그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지도속에 인민군대가 세인을 놀래울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해 나가고있다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천군 강북리 피해복구에 이어 또다시 천지개벽을 이룩한 인민군인들의 애국적소행과 혁명적투쟁기질에 실로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안아온 이러한 결실은 단순한 물질적인 창조물이기 전에 우리 당이 가장 중히 내세우는 정신적재부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당위원장에게 군내인민들이 좋아하고 거둬들이고 그들모두가 좋아한다니 더 바랄것이 없다고, 시대적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우리 당이 구상하는 리상문명사회에



어울리는 문화주택들에서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되찾는다면 그처럼 기쁘고 보람스러운 투쟁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진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당위원장과 건설부대 지휘성원들로부터 당에서 취해준 조치에 따라 애로와 난관속에서도 비약적인 속도로 훌륭한 살림집들이 일떠서는것을 보고 현지주민들이 밟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살림집이 솟아난다고,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 생겨 좋다고 했다는 반영을 들으시고는 우리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다고, 인민들의 솔직하고도 꾸밈없는 목소리에 힘이 난다고, 이제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평가도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피해복구건

설투쟁에서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건설 전 공정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존중의 관점과 원칙에 의해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피해복구지역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보면서 한가지 아쉬운것은 살림집설계를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한것이라고,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지대적특성, 인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원칙에서 독창성이 부여되고 주변환경과의 예술적조화성, 다양성이 적절히 결합되게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설계부문에서 반드시 경계되고 극복하여야 할 편향적인 문제들과 조선로동당의 건설정책의 중요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이번에도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지방건설투쟁에서 거대한 공헌을 하고있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건축이란 자기 시대의 사상과 문명의 높이가 직관적으로 반영되는 사상문화높이의 측도라는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효심을 간직하고 완강한 투쟁기질과 본래로 우리 당과 국가가 지향하는 문명세계의 높이에 맞게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는 표준살림집, 문화주택들을 자기 고향집을 꾸리는 정성으로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물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화군으로 오가시는 로상에서 피해받은 여러 지역의

포전들에 들리시여 농사작황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당시에는 내다볼수 없었던 좋은 작황이 펼쳐졌다고, 포전마다에 피해를 이겨낸 흔적이 력력하다고 하시면서 농장원들의 정성이 포기마다 고이고 그들이 바친 성실한 애국의 땀방울과 노력이 있었기에 례년에 없는 피해상황속에서도 이런 결실이 가능한것이라고 하시며 귀중한 농작물들을 끝까지 지켜낸 농업근로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엄혹한 자연의 광란은 많은것을 한순간에 휩쓸어갔어도 피해지역들에 번듯한 새 집들이 일떠서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고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여 최고수확년도에 못지않은 알곡소출을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올해는 정말 류례없이 힘든 해이지만 투쟁하는 보람도 특별히 큰 위대한 승리의 해로 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시련은 우리를 락심하게 한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역세지고 더욱 전진하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애국적이며 강한 인민인가를 더 잘 알게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런 총직한 인민의 모습에서 자신께서는 대단히 큰 힘을 얻고있으며 이 세상 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헌신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당중앙과 뜻과 발걸음을 함께 하며 결사관철의 합성드높이 살림집건설의 완공을 향하여 총돌격해갈 굳은 결의에 찬탄되어있었다.

본사기자

